

작가 노트

시각적으로 아름답고 세련된 이미지에 대한 한국인의 고정관념은 오늘날 크게 왜곡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인간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결국 인간의 눈에 익숙한 것이다.
우리 주변의 풍경이나 생명체의 모습에서 인간은 아름다움을 느낀다.
정상적인 건강한 인간이라면, 젊은 여성의 모습에서 최상의 아름다움을 느낄 것이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의 미의식에는 좀 이상한 구석이 있다.
자신의 생김새보다 왜 서구인들의 모습을 더 아름답다고 여기는 것일까?
큰 키, 긴 다리, 쌍꺼풀 진 큼직한 눈과 오뎅하게 높은 코를
한국인이 미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가?

그러한 미의식은 고대 그리스인의 모습에서 비롯된 아름다움의 전형이
고대 로마를 거쳐 유럽으로, 그리고 미국으로 흘러든 것에 불과하다.
근대 이후 유럽과 미국이 상대적으로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문화적인 측면에까지 힘을 떨치면서,
오랜 역사와 찬란한 전통을 자랑하는 동양의 문명이 푸대접 받음으로써 비롯된 일이다.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의 미의식은
어쩌면 고대 그리스에 속박된 상태가 된 것일지도 모르겠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우리 선조의 미의식은 전혀 달랐다.
전통적으로 아담한 키와 둥근 코, 도톰한 입술, 가늘고 긴 눈이
조선시대 미인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지 않은가!
그런데 지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서구인을 닮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면
답답하기 짝이 없다.

나는 이번 작업에서 아직 화장과 성형을 하지 않은 여고생들의 얼굴을 사진에 담아
한국 여성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
요즘은 V라인 등 얼굴의 윤곽선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나는 이와 반대로 헤어스타일과 얼굴 외곽선을 없애고
눈, 코, 입에만 더 가까이 다가가 부각시킴으로써
잃어버린 우리의 매력적인 얼굴을 찾아보고 싶었다.

너도 나도 인위적인 방법으로 서구인의 얼굴과 비슷하게 닮아가려 한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본연의 모습에서 순백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작업의 결과물을 내놓는다.

2012. 7. 22

최원진

The Artist's Comment

I believe Korean's view about visually beautiful and sophisticated images is heavily distorted nowadays. What looks beautiful to the human eye is, after all, what his eyes are used to. People appreciate the beauties of his surrounding landscapes and in forms of life. Any healthy and normal person will find the highest beauty from the young other sex. This is also the principle of nature.

From this perspective, there is something strange about Korean's aesthetic sense. Why do we see Western features more attractive than our own? Don't you find it abnormal that many Koreans value long legs, big eyes with double-eyelid and a sharp, high nose as signs of beauty?

Such aesthetic consciousness is only based on Ancient Greek's idea of beauty of human body left in their statues, which influenced Ancient Romans and later Europeans, and finally present-day Americans. As Europe and the U.S. wielded their powers—built on their strong military force and economic power – over the world since post-modern period, their cultures also has overpowered the Eastern civilization, which used to be revered by Asians for its long history and splendid traditions but now is treated poorly. Hence, we could say that our present aesthetic sense is chained to Ancient Greek's.

But a hundred years ago, Korean ancestors had different sense of beauty from us. Didn't they depicted a traditionally diminutive frame, a round nose, full lips, and wide, slanted eyes in a portrait of the Joseon dynasty lady to express the beauty of Korean women! Yet when I look around now, I see so many of us copying Western looks from the crown to the toe, and then I feel frustrated. In my latest work, I want to reveal the beauty of Korean women by capturing the faces of high school girls who do not put on make-up or have yet to get plastic surgery. These days, many tend to emphasize an oval facial line with a sharp chin (which is called 'V-line' among Koreans); in contrast to the recent tendency, I remove hair and facial outline from my frame and, instead, focus on their eyes, noses, and lips to recapture Korean's attractive features that we lost.

It is disastrous that everybody tries to change their faces and bodies artificially just to have Western-looking features. I present the result of my work, hoping that we, Koreans, can re-discover the pure natural beauty inherent in us.

22 July 2012
Choi, Won-Jin